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2011

9

Cover Story

웨슬리 윌트윅스 선교사

Worldview Column

높은뜻 어린이 문학 세계관 학교
우리에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시민교육과 교회의 역할
서평 : 가치란 무엇인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연회의 시작 - 엘타워

호텔 가격의 거품은 걸러내고 품격만을 남겼습니다

세계 일류 기업들의 선택으로 더욱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엘타워에서 국내 최고의 연회를 경험하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닛산,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공 비즈니스의 무대로 **엘타워**를 선택했습니다.



닛산 / 그랜드룸



마이크로소프트 / 그랜드룸



2010 SFAA 서울 컬렉션 / 그랜드룸



인텔 / 마리골드룸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포츠파티,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품 있는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예약·문의 02-526-8600 ~ 4 | 양재역 7번출구 바로 앞 위치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발행인

손봉호

편집인

김승욱

편집

차명실

기자

임지연

편집위원

강진구, 권성윤, 권오병, 김승태

김원수, 김정일, 김종락, 박동열

성백영, 이승구, 유해신, 장갑덕

최태연, 한윤식

자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김도태

교정 자문

임춘택

자문봉사(녹취, 교정)

김하영, 김아리나

제작

한국학술정보

2011년 9월호

월간 WORLDVIEW 통권 135호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02-754-8004

E-mail

(사무국) info@worldview.or.kr

(학회)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facebook.com/cworldview



표지인물 웨슬리 웨스트워스

한국의 기독교성운동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

CONTENTS 2011.9

COVER STORY

04 한국의 기독교성운동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

웨슬리 웨스트워스 현은자

WORLDVIEW EDUCATION

12 높은뜻 어린이 문학 세계관 학교 김현경

18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춘희

22 기독교적 고전교육에서 해답을 찾다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WORLDVIEW COLUMN

26 우리에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2) 이승구

32 독일사에서 읽는 한국교회
오판에서 속죄로 돌아서라(3) 추태화

36 민주시민교육과 교회의 역할 백승현

WORLDVIEW CULTURE

40 '사랑의 종' 소리가 울리다 오익석

44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중기과정 5기를 마치며 박혜경

45 김명엽의 찬송교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김명엽

BOOK REVIEW

46 『가치란 무엇인가』 이윤재

WORLDVIEW NEWS

50 활동보고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 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평생을 한국의 기독교 지성운동을 위하여 헌신한 선교사

웨슬리 Wentworth(Wesley Wentworth)

📍 인터뷰 현은자(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선생님은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시나요?

저는 항상 네트워킹에 관심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기독교 학교와 여러 다양한 분야들을 연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전부터 계속해 오시던 일이네요.

그래요.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일은 예전과 같지요. 그런데 인터넷이 생긴 이후부터 바로 내 앞에 있는 컴퓨터 안에 도서관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그 도서관에 저장해 둘 기독교적 사고와 학문활동에 관한 책과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도 정보를 찾으시나요?

나는 유튜브 검색은 하지 않아요. 유튜브, 페이스북까지 뒤지는 것은 내 능력을 넘어서지요. 언젠가는 어떤 대학원생이 좋은 웹사이트를 보내주었는데 그 안에서 자료를 찾는데 2시간이나 걸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교수들에게 보내시곤 하나요?

바로 그 일 때문에 비서가 필요해요.(웃음) 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정보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나는 책들의 목록을 아마존에서 찾고 그 책들의 소개글, 추천글을 찾고 그것을 프린트하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자료를 필요로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지요.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아마존, 혹은 일반 출판사에서도 좋은 책을 찾으시나요?

그럼요. 꼭 기독교 출판사일 필요는 없어요. 좋은 책은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지요. 제가 1965년에 한국에 왔을 때는 그런 책이 거의 없었지만 요즘엔 기독교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어요. 최근에 출판된 좋은 책만 소개한다면, 옥스퍼드대학 출판사의 구약의 법을 현대의 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다룬 책,

「God, Justice, and Society: Aspects of Law and Legality in the Bible」(Jonathan Burnside, 2010), 역시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젊은이들의 성적 행동에 대해 두 명의 사회학자, 마크 레그네러스(Mark Regnerus)와 제레미 웨커(Jeremy Uecker)가 쓴 「Premarital Sex in America」(2011), 기독교 사회학자인 크리스찬 스미스(Christian Smith)가 시카고 대학 출판사에서 펴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책, 「What Is a Person?: Rethinking Humanity, Social Life, and the Moral Good from the Person Up」(2010)가 있어요. 스미스의 책은 월터스토프가 추천했는데 월터스토프 자신도 프린스턴 대학





MP 3층에 위치한 웨슬리 선교사의 검소한 집무실. 각종 책과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출판사에서 책을 두 권 펴낸 적이 있지요. 이렇듯 기독교 학자들이 기독교 출판사에서만 책을 출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 출판사에서 기독교 책을 많이 출판하고 있어요.

그런 책들은 한국 서점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너무 무거운 주제의 책이니까요. 예를 들어 클라우저(Clouser, 1991)의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라는 책은 매우 좋은 책인데 아직도 번역되지 않았어요. 사실 기독교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신국원 교수님께서 대학생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강의에서 추천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책을 찾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40년 이상 해오셨는데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 사회와 학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겠지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문서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한 선생님의 비전은 무엇이지요?

저는 소위 '선교사'로 한국에 온 것은 아니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선교'라는 이슈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 '선교사'를 말하고 있지요. 현재 한국의 상황이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1950년대의 미국과 흡사해요. 그 때에도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교를 말했지요. 내가 대학에 있을 때 IVF의 사역의 초점은 선교였어요. 만약 누군가가 기독교인이라면 누군가를 선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우리는 복음주의를 선교와 동일시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선교를 해야 했고, 기독교



사진 좌) 집무실 가득히 차 있는 각종 원서들과 자료들
 사진 우) IVP 서고에 따로 보관되어 있는 웨슬리 선교사의 판매용 원서들. 필요한 분들은 문의해 달라고 웃으면서 직접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교인이 아니라면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좁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지요.

나는 한국에 기독교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해외에 나가서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싶었지요. 나는 선교에 대해 혼자 공부했는데, 그 당시 한국의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교회였으므로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잘 알고 있었지요. 한국은 내가 전혀 모르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학창시절 내내 선교사를 통해서, 혹은 친척들을 통해서 한국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보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기쁘게 수락했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온 것은 아니었어요. 나를 한국에 보낸 엔지니어링 회사는 USAID와 관련된 회사였는데 서울 청계천 복개 공사를 위한 오수처리공사(waste water treatment plan)를 진행하고 있었지요.

선교공부를 했다고 하셨지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저는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콜럼비아 성경 대학(Columbia Bible College)의 대학원 과정에서 1년간 선교를 공부했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군에 2년간 있었고 그 후 대학원에서 1년 공부했는데 공부를 잘 하지 못했지요.(웃음) 그 후 버지니아 공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 고향의 교회는 매우 자유주의적인 교회였어요. 내가 자랐던 뉴 잉글랜드주의 주요 교회는 거의 다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였고, 아마도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교회였다고 할 수 있어요. 대도시의 대부분의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었고 농



“초기 기독교학문연구회는 대학원생이 대학원생을 가르치며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했어요. 그들은 비전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대학원생들의 멘토 역할을 했지요.”



촌에선 아주 적은 교회만 그렇지 않았어요. 난 중학교에 다니기 전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지요. 조부모님이 기독교인이셨지만 아버지는 비기독교인이었지요. 6살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12살에 새 어머니를 맞게 되었는데 새 어머니는 교회 일에 매우 열심 있는 분이셨지만 자유주의 신학에 헌신된 사람이었지요. 즉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분이 나를 교회에 보낸 것은 좋은 미국인이 되기를 바래서였어요. 그 당시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좋은 미국인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교회에서 말썽을 피우기만 했어요(웃음). 형은 청년부의 리더였지만 나는 문제아였지요. 버지니아 공과대학 2학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IVF의 회원이 되었고 그 때 기독교인이 되었지요. 그 때에도 내 고향인 뉴 잉글랜드의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보수적이지 않았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지요. 교회에는 가지만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정통신앙과 자유주의 신앙 가운데서 갈등했어요. 고향에서 같이 자란 사촌형은 제

가 대학에 다니고 있었을 때 미군으로 한국에 파병되었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지요.(웃음)

내가 8학년 때에 6.25가 발발했고, 나는 그 때 아버지를 도와 도서관 벽에 페인트공사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라디오를 켜고 한국전 소식을 들었지요. 그래서 회사일로 한국의 청계천에 갔을 때 그곳은 이미 내게 친근한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 후 형이 한국 여자와 결혼하였고... 이런 식으로 나는 점점 더 한국과 관계를 맺게 되었지요.

대학에 가서 기독교인이 되셨다고요?

그래요. 그 당시 내게는 정통신앙은 무엇이며 누가 좋은 기독교 학자인가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어요. 그 때 「Profitable Bible Study」 라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 부록에 실린 기독교 서적의 목록을 10번도 더 읽었어요. 내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공부보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대학에서 저의 관심사는 기독교 신앙과 비기독교 신앙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신학적으로 정통인가 복음주의 신

학인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기독교적 사고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것인가? 정통 신앙이 왜 자유주의 신앙보다 더 나은가? 였어요. 대학에선 내가 속한 IVF 회원이 스피치 강의 시간에 진화론을 비판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지요.

선생님도 그런 발표를 하셨나요?

아뇨, 그들이 훨씬 더 잘했어요(웃음). 나는 쓰기와 말하기를 싫어했거든요. 나는 책을 찾고, 구매해서, 서고에 쌓아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읽지는 않으시고요? 왜요?

책 읽는데 느려요. 한 마디로 근면하지 않지요. (웃음)

그런데 왜 선생님은 책을 안 읽는 사람을 비판하시지요?(웃음)

그것이 학자로서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죠. 나는 여러 학문 분야의 책을 그들에게 주고 읽기를 바라지요. (웃음)

선생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은 누구인가요?

서울에 와서 6개월 동안 일한 후에 광주 기독교병원이

독일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병원을 재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감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자주 광주에 내려가곤 했어요. 그래서 전주에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돌아가셨지요.

초기 기독교학문연구회의 황영철, 김현수, 양성만, 홍병룡, 정세열 같은 분이 내게 매우 의미있는 분들이지요. 손봉호 교수님은 그 당시 그들의 조연자 역할을 하셨지만 주로 그들에 의해 일이 진행되었지요. 그들은 모두 대학원생이었는데 대학원생이 대학원생을 가르치는 식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했어요. 이것과 관련하여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 후 교수들이 기독교 학문연구회를 맡고 나서 대학원생들보다 일을 더 잘하게 되었는가예요. 그 때의 대학원생들은 현재의 대학원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었지요. 그들은 비전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대학원생들의 멘토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대학원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주도권을 갖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학교(Christian schooling)에 대해 큰 관심이 있으시죠. 기독교 학교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학교' 대신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교회 학교로 그 개념이 축소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는 기독교 학교의 목표는 기독교 신앙을 모든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을 학생들에게 물어볼 때 나는 "너는 손수 네 방을 치우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대부분의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 방을 청소해주고 공부만 하게 하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책임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해야 해요. 현재 서양에서도 그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미국의 가정에선 아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신을 책임지도록 가르쳐왔지요.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어요. 일을 해서 용돈도 벌고 학비도 냈지요. 돈을 벌어서 대학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물론 오늘날의 한국 상황은 제가 어렸을 때와는 매우 다르지만, 아이들의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워주는 일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제 아들은 인도의 빈민지역에 가서 두 달 이상 선교하고 돌아오더니 혼자 요리도 하고, 청소도 잘 하게 되었지요.

외국으로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단 서울의 슬럼에 가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경험해 보는 거지요. 나는 자유의 여신상에는 한 번도 안 가보았지만 할렘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호주 멜버른에 있는 어떤 기독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2~3일 정도 거리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하게 한다고 해요. 학생들은 그 일을 통해 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곳에서 사는 것은 어떤 삶인지를 배울 수 있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리에서 살아보는 것도 선교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일단 그들과 함께 살아보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거는지를 배울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오히려 외국에서 선교하는 것이 국내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지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이를 거리로 내보내라는 그 제안은 매우 도전적인 것 같네요(웃음). 다시 기독교 학교로 화제를 돌리는 것이 좋겠어요.

(웃음)기독교 학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예를 들어 교육 방송, 학원을 기독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요. 나는 기독교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고 많은 사람의 협력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도 기독교 학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부터 생각하지요. 유경상씨가 하고 있는 부모교육이나 청소년 교육같은 사역도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경상씨의 사역을 지원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또한 지금 있는 미션 스쿨을 기독교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해요. 교목이나 채플이 있다고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요. 10~15년 이후의 학교 교육은 지금처럼 상자와 같은 교실에 학생들을 집어넣고 가르치는 형태는 아닐 거예요. 미래의 학교 모습을 생각해야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목이나 채플이 있다고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나는 정통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반틸과 쉐퍼와 같은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알게 되었어요. 기독교학자들은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요. 기독교적 사고와 행함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그 자료들은 서적, Christian Scholars Review(<http://www.csreview.org>), Perspectives on Science & Christian Faith, Journal of the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 (http://www.asa3.org/html_pages/PSCF.html), Journal of the Conference on Faith and History(<http://www.huntington.edu/cfh/fides.htm>), 와 같은 학술지들, 기독교철학회(Society of Christian Philosopher)와 같은 조직, 마크 놀(Mark Noll)과 같은 역사 학자, 로버트 우드나우(Robert Wuthnow)같은 사회학자, 칼빈대학, 휘튼대학, 캐나다와 미국, 호주 등의 기독교 학교 등을 포함하지요. 신앙과 역사 학술지, 기독교 철학회 같은 조직은 기독교 학자에게뿐 아니라 미국학계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요. 철학자인 칼빈 대학의 플래팅가, 윌터스토프같은 교수는 미국의 철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드리면 좋을까요? 시간을 지혜롭게 쓰게 해달라고,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나는 좋은 기독교적 아이디어를 인터넷에서 찾는 것을 즐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웃음)

야까 선생님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와 같은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나는 그를 격려하고 멘토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자료들을 조직하는데 서툰 것과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머지않아 선생님의 76세 생신이시네요. 어떻게 생신을 축하해 드리면 좋을까요? (웃음)

(웃음)생일 축하 파티같은 것은 사양하겠어요. 만일 누가 기독교적 사고와 행함을 논하는 세미나를 연다면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하겠지만요.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였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나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높은뜻 어린이 문학 세계관 학교

학문과 삶이 기독교세계관으로 통합되기를 소망하는 기독교 아동문학 프로그램

🕒 김현경

‘어문세’는 ‘높은뜻 어린이 문학 세계관 학교’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서 어린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문학을 바라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아동 문학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12기 수업 준비가 한창인 ‘높은뜻 어린이 문학 세계관 학교’(이하 어문세로 약칭)는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에서 주제별 연구를 통해 강의를 준비하고, 높은뜻 광성교회 교역자 및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문세가 시작된 지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이름이나 개념이 아직까지 조금은 특별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학문과 삶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통합되길 바라는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의 소망에서 시작된 어문세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독교 세계관과 아동문학 연구하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 삼기를 원하신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교역자에게만 해당되는 사명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길 바라지만,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학문을 바라보고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늘 쉽지 않다.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는 아동문학이라는 연구 분야와 아동문학교육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며 2002년에 시작되었다.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는 혜화동에 소재하였던 기독교학교 자료센터에서 현은자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비전』(미들톤과 왈쉬 저, IVP)과 같은 기독교 세계관 책과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비이스 저, 나침반), 『그리스도인에게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비이스 저, 나침반), 『신앙의 눈으로 본 문학』(겔러거와 런던 저, IVP), 『창조성의 회복』(프랭키 쉐퍼 저, 예영),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로크마커저, IVP)과 같은 책으로 기독교 문학과 예술관을 공부하며 기독교 세계관과 아동문학의 연결점을 찾아나갔다. 초기의 회원은 성균관대 아동학과 대학원생들을 비롯하여 센터에서 모임을 갖던 기독교 유아교육학회의 회원과 기독교 학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 아동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배경은 다양했지만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좋은 책’이 어린이들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에 주목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일 년에도 수 천종씩 출판되고 있지만 모두 다 좋은 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라보았을 때 ‘좋은 책’이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아동도서를 같이 읽고 평가하면서 연구회에서는 2005년에 출간된 『내 어린이가 꼭 읽어야 할 좋은 책 110(유아·유치편)』과 『내 어린이가 꼭 읽어야 할 좋은 책 150(초등편)』(예영출판사)에서 좋은 책의 기준을 제안하고 책의 서평과 독후 활동을 담았다.

나니아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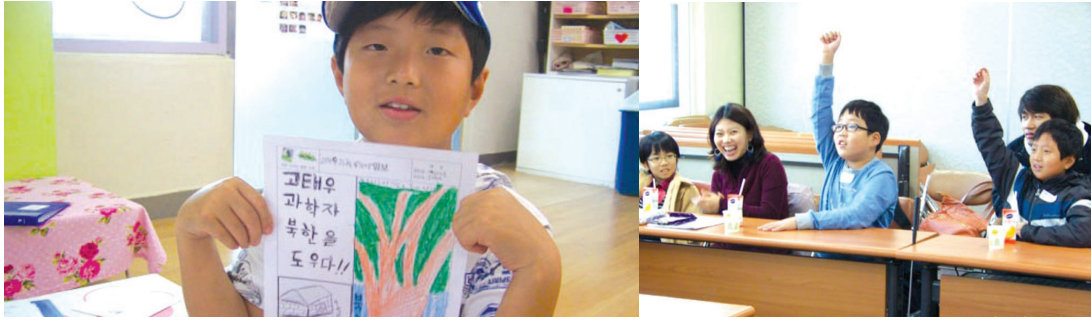
그 이후 연구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것 뿐 아니라 책 읽는 법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어린이들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일차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와 더불어 세상을 보는 안목도 자라게 된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문학의 즐거움을 누리는 과정에서 그들은 표면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나타난 작가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러한 세계관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책을 읽는다고 어린이에게 저절로 그러한 능력이 자라는 것은 아니므로 성인이 도와줄 필요가 있었으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위 아동문학전문가로서 우리들의 역할을 발견하였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는 2005년 여름 기독교 학교 자료 센터에서 '나니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초등학교 연령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나니아 프로젝트는 C. S. 루이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법사의 조카』를 읽고 토론 중심으로 진행된 수업이다. 나니아 프로젝트에서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말하는 사자 아슬란의 판타지 이야기’와 같이 문학교육의 측면에 한하여 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슬란이 창조한 나니아 나라의 이야기를 성경의 창세기에 비추어 비교해 보고, 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 반지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았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어린이들은 루이스의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대신, 루이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나니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구원들은 이 일을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문학교육과 신앙교육의 접목을 시도한 나니아 프로젝트는 그 당시 매우 실험적인 시도였지만 연구원들은 이것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한 일임을 확신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가 일회성의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랐다.

높은뜻 어린이 문학 세계관 학교

‘높은뜻 어린이 문학 세계관 학교’는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와 높은뜻 송의교회가 손을 잡고 2006년에 시작한 어린이 문학교육 프로그램이다. 마침 높은뜻 송의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연구원 중에서 송의교회



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모임과 연결이 되었다. 처음부터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은 아동문학교육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지금까지 부모, 교사, 어린이, 이 세 집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개발되고 실시되고 있다.

‘좋은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높은 뜻 어린이 문학 세계관 학교’라는 모토로 시작된 어문세는 2006년 1학기에 1기 어린이들의 참여로 시작되어, 2011년 현재에는 12기 어린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동안 2009년 높은뜻 송의교회의 4교회 분립 이후 교육장소가 높은뜻 광성교회로 옮겨졌다는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높은뜻 송의교회 시절과 다름없이 지금도 여전히 다른 교회 어린이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다른 교회의 교역자들도 어문세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거나 스스로 교사로 지원하여 함께 하고 있다.

쉬는 토요일을 활용하다 보니 어문세 프로그램은 한 학기에 2개월, 8주간 진행되지만 실제 수업은 격주에 1회씩 4회기로 이루어진다. 학급은 어린이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1-2학년 반, 3-4학년 반, 5-6학년 반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어문세 수업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학급수도 매학기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교회의 교역자들의 참여율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어문세는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아동문학 작품을 감상한 후, 교사 및 또래 어린이들과 토론을 하며 성경 말씀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게끔

하는 수업이다. 즉,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서로의 생각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독후활동보다는 책의 선정이나 책과 관련된 발문 작업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동문학교육을 한다고 할 때 신앙서적이거나 성경 이야기 그림책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책은 그러한 좁은 의미의 ‘기독교 서적’은 아니다. 프랑키 쉐퍼가 『창조성의 회복』에서 “집을 짓는 사람을 위한 기독교 벽돌이 따로 없는 것처럼, 기독교 예술이라는 것도 따로 없다.”고 말하였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아동도서는 문학과 예술성이 높으며 매 학기의 주제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책들로 선정되었다.

2006년부터 어문세는 매학기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왔다. 2006년-2009년까지 주로 다루어졌던 주제는 살림, 가족, 우정, 생태환경, 민주시민이다. 그리고 2010년 1학기에는 ‘출생과 탄생’을, 2학기에는 ‘삶과 죽음’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2011년 1학기에는 ‘부르심과 응답’을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2학기에는 ‘돈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문세의 내일

그동안 어문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높은뜻 광성교회에서는 어문세를 교육부서의 한 갈래로



어린이문학세계관학교 11기 교사교육 모습

두지 않고, 독립된 하나의 부서로 두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어문세 프로그램이 조금씩 주변에 알려지면서 다른 교회의 교역자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 시작했으며, 어문세에서는 교사와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교육 프로그램만큼 큰 비중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어문세 프로그램이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나 높은뜻 광성교회만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이다.

어문세를 준비하는 교강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이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에 간혀 있기보다는 이곳을 통해 필요한 곳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한다.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의 강사들을 통해서만 어문세 수업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교사들이 스스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강사로 세워져 더 많은 어린이들이 어문세를 통해 문학을 즐겁게 접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육에 접목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솔직히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임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초창기 멤버를 비롯하여 함께 했던 몇몇 연구원들이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어문세를 떠나기도 하였으며 그 때마다 남은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계속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몰려오곤 하였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분들로 항상 그 빈자리들을 채워주셨으며 우리가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육에 접목하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어문세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은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다. 교강사들과 교역자들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과 신앙의 기쁨을 긴밀하게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대학기의 주제를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속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세밀하심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제 어문세의 교강사 그리고 함께 하는 교역자들에게 어문세는 귀중한 사역이고 소명이며 삶이다.

어문세와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 그리고 높은뜻 광성교회의 주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겨 드리며, 오늘도 지극히 작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문세 를 완전히 마치고 나서 느꼈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평소엔 그냥 감동이나 좋은 말을 듣고는 '아!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엄마랑 무엇이 옳은 것인지 토의도 했고요,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어문세 이번 제10회 <삶과 죽음>에서 너무 좋은걸 많이 배워 갑니다. 강사님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7일 어문세에 참여했던 한 어린이의 글-

높은뜻 어린이문학세계관학교 안내 (club.cyworld.com/GWKidsLWWSchool)

어문세는 매학기 8주 과정(4회기)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기초에는 교사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어문세 12기 교사교육과정은 9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 안내 (<http://cafe.naver.com/forccds>)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망을 가지고 격주로 연구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에서는 아동문학에 대한 이론서를 함께 공부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좋은 책을 함께 읽으며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나눕니다.



김현경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아동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아동문학교육 전공으로 동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기독교유아교육학회 간사로 일했으며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와 높은뜻어린이문학세계관학교에서 활동 중이다. 현재 '뉴미디어 시대의 그림책'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기독교학자들의 헌신이 요청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독교대안학교들의 외침-

오춘희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 학문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어느 민족 가운데 교회를 불러 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의 시대와 민족의 형편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응답하게 된다. 1980년대 한국의 대학가 학문의 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연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문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예수 천당이라는 말만으로 전도가 되었던 기독교 전래 초기와 달라진 1980년대의 사회 속에서 개신교 선교 100주년과 맞물려서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성들이 고조되었었다. 복음의 뜨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헌신이 강조되게 되었고, 학문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문에 대한 책무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고백하듯이, "주일에만 그리스도인

이고 강의실에 들어갈 때는 신앙은 따로 두고 들어가느냐"고 도전하신 대천덕 신부님의 강한 권면에 기독교인인의 삶과 학자의 삶을 이중적으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학자로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교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던 나도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기독교적 교육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의 학교교육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성경을 떠난 인류의 문화와 학문이 만들어 낸 곤경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기독교 대학과 대안학교

1985년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라는 긴 이름으로 결성된 단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각 학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대학을 함께 꿈꾸었다. 마찬가지로 초중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학교에



기독교대안학교들은 무엇이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인지,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적인지, 교육과정이나 교재, 교사의 훈련 등의 한계로 단위 학교 내에서도 일관성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1980년대 그것은 불가능한 꿈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 한동대학교가 기적적으로 설립되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는 교육 현실 속에서 한국사회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화하여 기독교대안학교가 하나 둘씩 출현하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 기독교대안학교의 수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 정확한 수를 말하기 어렵지만, 2011년 현재 적어도 50개 이상의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의 어려움

사실 한국에서 기독교대안학교의 등장은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가장 큰 열매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가르친다고 하는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과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무엇이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인지,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적인지 각 학

교마다 나름대로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이나 교재, 교사의 훈련 등의 한계로 단위 학교 내에서도 일관성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떤 학교들은 외국의 유명한 기독교교육과정 패키지를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거나 참고하여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이해와 문화가 다르기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학교가 아닌 이상, 대다수의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대안학교에서 해외에서 개발된 기독교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교들은 국가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교육과정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채택할 경우 대안학교들은 진정 하고자 하는 교육에 소홀해진다.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면, 나중에 빠진 부분이 생겨서 이후의 교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단위학교별로 교육과정이 달라서 학교들 사이에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이러 저리한 이유로 한국 기독교대안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과정의 개발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한국 기독교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들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과정은 한국의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의 폭과 깊이를 포괄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재개발과 교사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각 교과별로 전문학자 집단과 출판전문가와 현장교사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위학교의 규모를 훌쩍 뛰어 넘는다.

독수리학교에서 여러 해 교사교육을 담당해 오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각 교과별로 교사들의 질문에 답하고 함께 고민할 전문 학자들의 협력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과내용을 재해석하고 지도해줄 각 과목의 기독교인 학자들이 정말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의 의문과 요구를 실제로 연구해줄 각 교과 영역의 대학원생들이 있어야 한다. 독수리학교는 어떻게 각 교과별로 전문학자와 대학원 이상의 연구생들이 대안학교 교사들과 모여서 장기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교육

과정 개발을 완성하기까지 네트워킹을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학자들은 교회일로 학교일로 바빠서 자신의 연구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현실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위해서나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 등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 기독교학문운동의 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기독교사들을 훈련하고 기독교대안학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세워진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진정한 기독교학으로 성장해 가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교육에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세워진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오히려 지리멸렬해 지고, 결국 미션스쿨들이 공공교육화 하였던 것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독교 학자들에게 제안한다

지금은 기독교대안학교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운동, 기독교학문 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점이 아닐까? 다년간 기독교세계관으로 전공학문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온 기독교학자들이 기독교대안학교들을 도와야 할 시기가

한국교육의 전반적인 문화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독교사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사용하여 가르칠 교재와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기독교대안학교가 한국 사회 문화 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된 것 같다. 한국에서 진정으로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하는 기독교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기독교학문의 동역자들에게 두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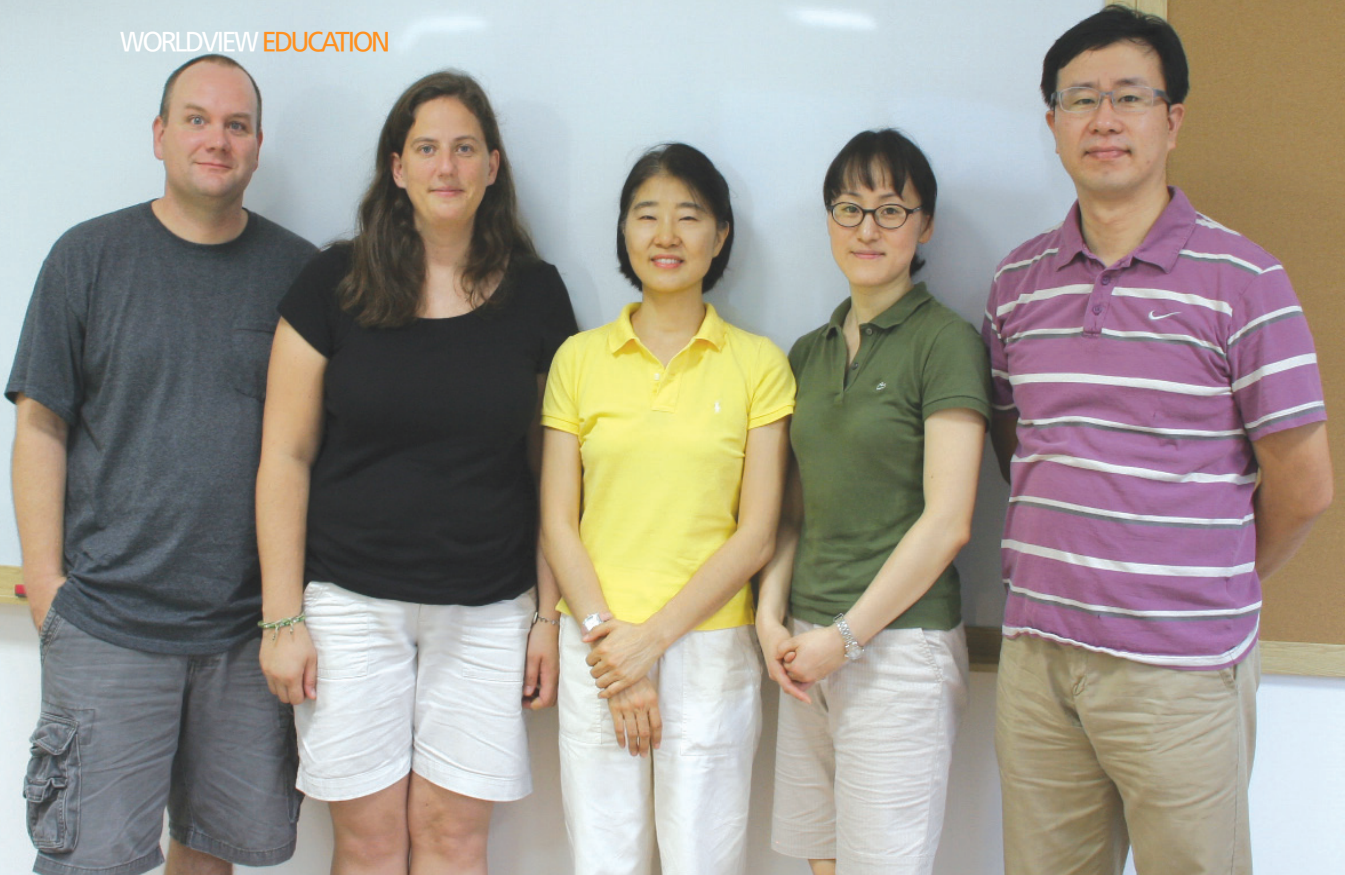
첫째, 각지에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대안학교에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것이다. 각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기독교세계관 교사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학자에게도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각 학문의 영역의 전문가 집단과 교과별로 교사들의 집단이 함께 모여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모임을 시작하는 것이다. 기독교대안학교 연맹이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같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단위 학교들을 각 교과별로 선정하여 교육과정개발의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작이 순조롭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전체

교육과정이 완성되고 그에 따른 교재개발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대안학교 교사교육과 교육과정의 개발의 성공여부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독교학교들을 세우자고 말만 무성하게 하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뒷받침을 못해 주고 세워만 놓고 알아서 운영하라고 단위학교에만 맡겨두는 것은 한국 기독교 공동체에게 오히려 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기독교대안학교를 위하여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 학문의 영역에서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훈련, 교재개발 등 현장과 연계된 헌신이 일어나야 한다. 한국교육의 전반적인 문화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독교사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사용하여 가르칠 교재와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기독교대안학교가 한국 사회 문화 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오춘희 연세대학교에서 교육철학, 교육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아세아연합신학대에서 기독교교육을 가르쳤고, 기독교학문 연구회 교육분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독수리학교 기독교학교연구소 소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기독교적 고전교육을 추구하는 국제학교 SICA

기독교적 고전교육에서 해답을 찾다

📍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ICA : Seou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양육할 수 있을까?” 서울 양재동 소재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는 단순하지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기독교적 고전학교’를 시작했다. 고전언어와 인문학을 겸비한 주도적, 올바른 품성을 가진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이 기독교 교육 철학에 맞추어 새로 만들어졌다. 현재 기독교 교육의 어려운 점을 꼽으려면 성경적이지 않은 기독교 교육과 세속화되는 기독교 교육일 것이다. 또한 기독교 교육을 표방하나 이분법적이거나 세상의 학문과 그 수월성을 견줄 수 없는 점 일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다. 수년간 기독교적 교육과정을 세우기 위해 미국의 기독교 학교들을 꾸준히 탐방하고 연구하고 준비했다.

SICA는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목표로 하며 이곳을 통하여 지식과 품성을 겸비한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리더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부 방법과 공부 단계인 “삼학과(trivium)”

현대의 교육은 인성교육은 제쳐두고 명문대학, 영어 실력, 높은 보수의 직업 등 단기적이고 치우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SICA의 교육은 지향하는 바가 많은 면에서 현대교육과 크게 다르다. 우선, SICA는 고전교육을 통해 현대교육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교육’의 회복을 추구한다. ‘고전’이라는 말은 ‘삼학과(trivium)’중심의 교육을 가리킨다. ‘삼학과’는 중세시대에 확립된 ‘배움의 도구’들로써, 문법(grammar), 논리(logic), 수사(rhetoric)로 이루어져 있다. 고전학교는 이 배움의 기술들을 제2의 천성이 되도록 능숙하게 익혀 학문의 기초를 닦는 것을 목표로 한다. SICA는 십 년 이상 국제학교와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경험과 관록을 쌓은 교사들에 의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국제학교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한국, 한국교회사 등을 한국어로 가르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선 다른 국제학교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런 이유에서,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서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살아 있는 책과 고전어 학습을 통한 학문의 기초 놓기

SICA는 교육의 ‘내용’에서도 다른 학교와 차별성을 지닌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특정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교과서는 아이들이 먹기 좋게 쪼개어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다. 단

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통찰력과 지혜를 배우기는 힘들다. SICA는 아이들에게 소위 ‘살아 있는 책(Whole Books)’을 교과서 대신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권위 있는 인문고전들을 통해 과거와 대화할 수 있어야 인생의 깊이 있는 질문들을 제시할 수 있고, 미래를 향한 통찰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SICA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 할 뿐 아니라, 라틴어와 헬라어 등의 고전어와 성경언어를 가르친다. 고전어를 배운 학생들은, 현재 미국대학 입학시험인 SAT에서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하버드(Harvard)나 옥스포드(Oxford)와 같은 대학교들은 고전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 사실과 원리를 체득하고, 모든 사실들이 어떻게 상호관련 되는지 논리적인 사고를 훈련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경원 교장의 말이다.

재미있는 고전 교육 방법과 통합교육

SICA의 각 수업은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진행된다. 기존의 학교가 문제 풀이식이 지배적인데 반해, 각 과목 안에 ‘사운드 오프(sound off)’를 활용하여 배우고 익힌다. ‘사운드 오프’는 일정한 운율에 맞추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으로써, 혼자 학습이 아니라 전체 학습을 이룬다. 또한 천 년 이상의 전통



을 가진 디스퓨타티오(disputatio)의 토론수업을 통해 ‘변증과 설득과 사고’의 근육을 훈련을 하게 한다. SICA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은 모든 학과목의 ‘통합교육’이다. 예를 들어, 역사 수업 안에서 시와 문학, 미술과 음악, 지리와 문화를 연결하여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자와 헬라어를 배우며, 라틴어를 배우면서 고대 로마 역사를 배우는 식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모든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울 뿐 아니라, 과목들 간의 연결 고리를 찾는 사고를 훈련 받게 된다.

현대 교육의 문제 극복

SICA는 고전교육의 틀 속에서, 현대교육의 두 가지 맹점을 극복하려고 한다. 첫째는 지위주의 ‘수동적 주입식 교육’이다. 고전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

을 목표로 하기에, ‘삼학과’에 숙달한 아이들은, ‘스스로를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오늘 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백과사전식의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강요 받지만, 정보와 지식들이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훈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식의 파편화’가 심해 졌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은 이러한 ‘지식의 파편화’를 극복 할 대안으로 보인다.

지식과 품성을 겸비한 사람

현대 우리사회가 겪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권위의 위기’이다. ‘권위’에 대한 존경심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고 있으며, 학교 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SICA는 한 달에 한 번씩 경청, 존중, 절제, 겸손, 충성, 감사, 질서 등의 ‘관계의 품성’



을 배운다. 모든 배움의 과정에서,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좋은 성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영향력'이라는 열매를 맺기는 어려울 것이다. 건강한 품성의 기초는 절대적 가치의 존중으로부터 시작되어, 아이 하나하나가 존중되는 것이 아

니겠는가?
SICA는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목표로 한다. 이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리더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교장 이경원 박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미국 메릴랜드대학 음악 작곡 박사
한양대 및 동 대학원 12년 강의
2006 홈스쿨 오케스트라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조직
옹인에서 제 자녀를 홈스쿨로 양육
현재, 음악감독 및 시니어 오케스트라 지휘자,
챔버 앙상블 코치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 교장.



교목 안정진 목사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54회 졸업(M. Div.)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Th.M.)
미국 New St. Andrews College(M. A.)
현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 교목

우리에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2)

모든 기독교적 활동의 기초 다지기

이승구

지난 호에서 카이퍼는 가장 건전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 그리고 건전한 기독교 문화 활동의 이상(vision)을 제시했다고 논의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건전한 그리스도인과 그의 활동이 진정 기독교적인 것이 되기 위한 기초는 무엇인가를 논의해 보기로 하자. 이를 신앙적 기초, 또는 신앙적 동기라고 말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모든 기독교 활동의 토대로서의 기독교 신앙

카이퍼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요점이었다. 그는 이 세상의 다른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기본적 신앙이 있음을 강조한다. 물론 그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과는 다른 신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근원적인 헌신 배후에는 그 나름의 신앙이 있고, 그것이 가장 근원적 동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점을 카이퍼를 따라서 잘 강조했던 분이 도어베르트(Herman Dooyeweerd)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근원적 헌신 배후에는 다 신앙이 있다면 기독교적 헌신 배후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 때에 또한 목사 초년생 시절에도 자신에게 신학을 가르친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을 따라서 자유주의자이었던 카이퍼는 후에 이점을 아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 철저히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다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카이퍼 자신은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일이 지속될 때에 그 사람과 그런 소위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날 한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기독교적 활동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깊이 유념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과연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것인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의 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첫째 시금석은 타락한 인간의 능력을 과연 철저한 불신하며, 중생을 비롯하여 모든 일에서 항상 성령님께만 의존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다.

동도 기독교적 활동이 아니며, 우리 교회도 기독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카이퍼는 근본적으로 급진적(radical)이다. 우리들이 흔히 오늘 날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급진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근본적인(radical) 질문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radical한 것이다. 이 질문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질문은 한 세대 전체가 묻던 때가 있었다. 그 때가 바로 종교 개혁시대였다. 중세 말기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일은 물론 여러 번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진정한 교회인지를 묻고 답하려고 했던 (그러므로 그저 믿는다고 하고, 주일에 모여 예배한다고 해서 진정 교회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명백히 천명했던) 종교개혁시대의 성도들과 같은 질문을 카이퍼는 자유주의 목사였던 자신과 자신의 시대의 교회에 제기했던 것이고,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진정 기독교인이려면, 그리고 기독교적 활동을 하려면 이 질문을 스스로 깊이 있게 하고, 대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카이퍼는 정통적 교회가 항상 그리했듯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분명히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독교 신앙(1): 중생의 필요성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음

카이퍼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인간이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천명한다. 물론

타락한 인간들도 일반 은총 덕분에 진리의 파편을 말할 수 있고, 시민적인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참된 진리도 아니고 참된 덕도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천명한다. 카이퍼가 이를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유주의적 시기의 사유 방식 때문이었으리라고 여겨진다. 기독교 자유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비록 타락했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카이퍼가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뒤에 성경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생각해 보니 타락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특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무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따라서 암중모색(暗中摸索)하는 존재이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런 영적 소경됨으로부터 도무지 자신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역사(役事)하셔서 인간을 영적으로 다시 나게 하실 때에만 (즉, 重生해야만) 인간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어떤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의 시작은 모두 중생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로 중생한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부분과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하여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첫째 시금석은 타락한 인간의 능력을 과연 철저한 불신하며, 중생을 비롯하여 모든 일에서 항상 성령님께만 의존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2): 십자가 구속의 절대 필요성을 믿음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자신에게나 타른 피조물에게 도무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에만 근거한다는 것을 철저히 믿게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행 4:12)”는 것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과정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 독력주의(獨力主義, monergism)를 믿고 주장하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형태의 신인 협력주의(synergism)를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둘째 시금석은 십자가에서 구속(atone-ment)이 일어났음을 철저히 믿고, 구원을 위해서는 이 십자가에서의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지의 여부이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든지, 또 구원의 궁극적 범위에 대해서는 불가지론(不可知論)을 주장해야 한다는 등의 생각을 도무지 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기독교 신앙(3):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과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절대성을 믿음

그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만 내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개혁지들과 카이퍼 등이 강조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리”라는 말의 뜻이다. 모든 것을 고려하되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만 모든 문제의 최종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성경 전체(*tota scriptura*)의 가르침을 준거틀로 하여야만, 오직 성경의 원리를 오용하지 않게 된다. 성경은 그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모든 부분을 중요시하며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며 중요시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실제 시공간(時空間) 가운데 있었고, 그 안에서 타락했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 예수님의 몸의 부활,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심,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임 등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다 믿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이 자증(自證)하는 것

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으며, 그 영감의 과정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유기적이어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시되 인간적 오류가 스며들지 않게 하셨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축자 영감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됨을 주장한다. 이 일도 카이퍼가 자유주의자였을 때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매우 강하게 주장하는 점이다. 그 시기의 카이퍼는 성경을 다 믿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으나, 정통 기독교로 돌아 온 이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적 사유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셋째 시금석은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지의 여부이다.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기독교 신앙(4): 그리스도와 의 신비한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 의식을 가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의 영적인 몸(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화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며, 교회를 구약 시대의 성전과 혼동하지 않으며,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위한 건물인 예배당(혹은 교회당)을 교회와 혼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구속 받은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임을 감사히 여기며, 그 교회의 지체(肢體) 역할을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를 중요시하며, 그 교회 공동체의 예배(leiturgia)와 교제(koinonia)와 섬기는 활동(diakonia)과 교육(paideia), 그 지체(肢體)로서 사는 삶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은혜의 방도(media gratiae)인 말씀과 성례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중요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넷째 시금석은 성경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하며, 그 교회 공동체로서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사는가의 여부이다.

기독교 신앙(5):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구현하는 적극적 활동을 함

그러나 진정한 생활은 교화 공동체 안에서의 삶으로 마쳐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 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진정한 신앙인은 그 기독교 신앙을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이는 어떤 종교인





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 더구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문화를 변혁하는 삶에 나아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교화 공동체의 삶은 결국 이 문화 변혁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물론 시대가 악하여서 전혀 문화 변혁적인 일을 못하는 상황 속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초대 교회

나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문화 변혁 활동을 도무지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사회의 주도적 문화와 대립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 카이퍼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 입장이 이런 반립(anti-thesis)에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한다. 우리는 골수 깊히 하나님을 저항하여 나가는 이 세상에 대해 반립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 목적도 그런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것을 쳐서 복종케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문화 변혁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승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함동신학대학원, 세인트앤드류스대학교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고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을 거쳐 현재 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과 부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요리문답강해1, 2』, 『21세기 개혁신학』, 『광장의 신학』,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이 있다.



Samsung GALAXY S II

4.3 SUPER AMOLED PLUS

MOTION UI

DUAL CORE

오판에서 속죄로 돌아서라

독일사에서 읽는 한국교회 (3)

☞ 추태화

연재 순서

- 1회: I. 파장의 중심, 한국 교회
 - II. 비판의 대상이 된 독일 교회
- 2회: III. 역사 왜곡에 앞장 서다
 - IV. 분단을 저지할 수 있었다
- 3회: V. 통일로 속죄하다,
VI.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



통일로 속죄하다

분단 뒤 동·서독 교회는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갔다. 동독 교회는 사회주의 정권의 전술적이고 지속적인 탄압으로 서서히 쇠퇴해져 갔고, 서독 교회 교인들은 교회로부터 서서히 탈퇴해 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을 세워가셨다. 서독 교회는 동독 교회를 위해 여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동독에서 자유언론 행위와 체제 비판으로 수감된 정치범들을 보석금을 내고 서독으로 데려오기도 하였다.

동독 교회는 체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화를 향한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 초에 동독 각지의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회가 열렸다. 초기에 기도회는 월요일 업무가 끝난 후 저녁에 교회에서 가졌다. 시작은 기존 교인들 중심으로 미약했다. 그러다 점차 일반 시민들까지 가세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수 천명이 모여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자유에 대한 정치적 열망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이 지속적인 시민 기도회의 중심이 되어있었다. 라이프치히(Leipzig)에 소재한 니콜라이(Nikolai) 교회가 월요기도회 운동의 중심이 되어갔다. 기도회는 설교 뿐 아니라 전국에 수감된 교인들의 명단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전세계에서 탄압받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였다. (통일 후 현재 기도회는 곳곳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회로 모임을 갖고 있다).

1989년, 라이프치히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열린 월요기도회 후 주요 간선도로를 걸으며 평화시위를 했다. 무장경찰이 발포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느 고위관

리도 형제요 자매인 그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시민들은 평화기도회의 원래 목적에 맞게 무장하지 않았고, 경찰서 및 관공서를 약탈, 파괴하지 않았다. 수십만 명이 폭도로 변했다면 무장을 서슴치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갇혀있던 동료 정치범들을 석방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으로 시작한 행동인만큼 평화적으로 시위하였다. 동독 사회주의 정권은 평화 시위로 의사를 표명하는 교회와 시민들에게 백기를 들게 되었다.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동·서독은 통일 과업을 이룩할 수 있었다. 동독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 그 중심에 바로 동독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또한 오랜 세월동안 동독 교회와 교인들을 지원한 서독 교회를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한국 교회가 가야할 길

역사는 속이지 않는다. 역사는 거울보다도 더 정확하게 상황을 비추주고 있으며 교회도 다르지 않았다. 역사는 교회를 왜곡하지 않으며 역사를 통해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그동안 살펴본 근대, 현대사 속의 독일 교회는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역사가 독일 교회를 왜곡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역사가 독일 교회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한 것일까? 우리는 거꾸로 말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역사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오판(誤判)이라 말한다. 독일 교회는 한동안 오판의 늪에, 오판의 죄악에, 오판의 범죄에 떨어져 있었다.

독일 교회는 1850년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나치의 발흥에 대해 오판으로 일관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굳어져온 관성적 습관에 의해 스스로 자연스럽게

좌측 사진설명: 월요춏불기도회의 중심지로 떠오른 라이프치히 시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



사진 좌. 독일 분단의 상징 베를린 장벽 위에 올라가 사회주의 붕괴와 자유를 환호하는 동서독 시민들, “독일 조국은 하나다”라는 플래카드로 통일을 염원하고
 사진 우. 동서독을 갈라놓았던 철조망을 자르는 시민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가 실현되기 위하여 한국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가?

(?) 행동했다고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을 치명적인 오판으로 판정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록이다. 독일 교회는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는 구호 아래서 극우 민족주의의 집결지가 되고, 나치와 히틀러를 옹호하게 되고, 결국 분단이라는 비극을 가져오게 한다. 그 과정에서 복음적 신앙인들의 저항, 희생, 순교는 교회의 본질을 온 몸으로 증거한 사례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분단의 비극을 맞게 된다. 교회도 동·서독 교회로 분리되었다. 하지만 서독 교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동독 교회를 지원했고, 동독 교회는 사회주의의 탄압 속에서도 굳건히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믿음과 기도, 사랑과 평화였다. 월요기도회를 실천해 가던 10년 즈음에 사회주의 정권은 복음과 교회로부터 샘솟은 능력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이로서 독일 통일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이 과정은 옛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복음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하고 광대한지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

역사 속에 비친 독일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한국 교회는 어느덧 사회를 걱정하던 위치에서, 사회의 염려를 받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 역사 속에 비친 현재의 한국 교회, 독일 교회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시급한 몇 가지만 거론하기로 한다.

먼저 철저하게 성경과 복음으로 회귀해야 한다. 교회의 권위를 세속적으로 누리려는 자세, 그리하여 교회가 본질을 잃고 휘청거리는 모습에서 하루 빨리 돌아와야 한다. 한국 교회 안에 스며있는 사머니즘, 허례허식, 천민 자본주의, 권위주의, 경직된 위계질서 등등 말씀에서 벗어나는 비복음적인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여기에는 교역자, 평신도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 세속 권세와 손잡으려하지 말아야 한다. 나



염원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적 권세를 탐하고,
 원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원천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교회는 교회가 가야할 길이 있다.

치에 동조했던 기독교인들은 정권의 힘을 빌리면 전도와 선교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성경은 증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보다 이방의 제왕들과 협정했으므로 평화를 유지하려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었는가를. 교회가 사회적 권세를 탐하고, 원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원천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교회는 교회가 가야할 길이 있다.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빌미로 복음을 훼손, 왜곡해서 안된다. 1차 세계대전과 나치 시대에 우왕좌왕했던 독일 교인들은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

나님 보다 (눈에 보이는) 국가와 민족에 우선 봉사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에 열광했다. 결국 극우 민족주의가 사회적으로 득세하므로 나치를 옹호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교회는 민족주의의 시녀가 아니다. 교회는 민족주의에 길을 제시해야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우리에게 엄숙히 질문한다. 한국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내부의 혼란과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말고 역사를 되돌아 보라. 독일 교회의 사례를 통해 이 시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비전을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추태화 독어독문학 박사이며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학과장이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문화분과 분과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문화의 미로에서 길을 찾다』, 『태초에 문화가 있었느니라』,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등이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교회의 역할

백승현



다원주의와 인본적인 가치관 속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의 정치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온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는 유교와 불교에 기초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배로 인한 기성 권위의 해체, 해방과 6·25전쟁 이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물결의 도래, 근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전통적 가치관은 그 영향력과 명맥을 상실하였고, 한국인의 의식세계는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 공백을 메울 새로운 가치관으로 등장한 것이 120여 년 전 이 땅에 처음 소개된 기독교이다.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소망 속에 견뎌낼 수 있는 영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권위주의 정권들의 억압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항거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 그런 연유로 20세기 후반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증가와 기독교회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 100년 무렵인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 불기 시작한 탈현대,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세파가 이 땅에 불어 닥치면서 기독교 선교환경은 상대

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기독교의 위축과 성장세 둔화에는 물론 이런 외적 요인 외에 대형교회 목사들의 부자세습, 배금주의, 주도권 관련 분란과 싸움, 성적 타락과 같은 교회내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큰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여하튼 서양사상과 문화에서 탈현대(탈근대)와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은 18세기 중반부터 서구 사회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잡아온 계몽주의 사조에서 배태된 ‘현대’에 대해, 그리고 그 철학적 토대인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며 등장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현대와 자유주의를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포스트모더니즘과 계몽주의는 동일 모태에서 잉태되었다. 그들 양자는 모두 근본적으로 인간성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고 자율적 인간성을 윤리의 근간으로 삼는 인본적 가치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는 그 어떤 것도 보편적으로 옳은 것이 없고, 또 그릇된 것도 없다고 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에 근거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

서양인들이 이런 상대주의적 관점과 인본적 관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면, 특히 정치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영역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정치적 삶인가 하는 데 대해 교회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의 요소를 불교 등의 동양사상전통에서 찾으려 한 이후 불교에 귀의하는 서양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과, 특히 국내에서 최근 들어 불교의 입지와 영향력이 커진 것은 서로 무관치 않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가치가 허용되거나 존중되어 소수의 입장과 가치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발전된 민주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다원주의적 한국 정치사회의 모습인데, 한국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것도 이같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치 않다. 이런 급격하고 다변적인 시대상황의 변화추세 속에서 기독교인은 신앙의 기본관점을 훼손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면서, 정치사회의 다원적 요소들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차원에서 또는 개인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교회나 개인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신앙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 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간단명료하거나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이면서 일반론적인 답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혼재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다변적인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기독교가 국민통합과 국가안정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바른 시민의식, 정치의식을 가진 신앙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시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고대 정치철학자인 플라톤은 국가를 인간을 대

문자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국가가 건강하지 병들어 있는지 여부는 그 국가를 구성하거나 주도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건강하지 병들어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고 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선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이 개인적 삶의 차원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신앙과 정치문제는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교회에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설교나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금기시하거나 꺼리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삶과 함께 경제적 삶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민주사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독교인은 또한 정치적 차원의 삶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 볼 때, 정치와 종교는 전혀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한 개인의 삶은 모든 영역과 차원의 삶이 총체적으로 이뤄지는 하나의 생활장이다.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의 생활이 교회와 사회에서 각기 다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즉 주일에 교회에서 경건하게 지내다 주중엔 비신앙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이른바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면, 특히 정치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영역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정치적 삶인가 하는 데 대해 교회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니, 답을 제시해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 부딪치는 상황과 환경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어떤 지침이나 길잡이를 그들에게 교육 단련시켜야 한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바로 이 시대의 난맥상을 치유하는데 교회와 신앙인이 하나의 희망이자 길잡이로서 역할하고 기능할 수 있는 길이다.

상대주의 윤리관의 틈에 빠져있는 현대와 탈현대 사회에서 이제 영적으로 부패 타락하고 정신적으로 무질서해진 이 사회의 병든 상태를 치유하고, 도덕 윤리를 다시 세워 떠받쳐 나가야 할 책임, 의무, 희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기독교 정신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막중한 보루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감당하기 위해 교회지도자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그대로 자신의 삶속에서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에 더하여, 사회의 다른 요소들과도 더불어 살면서 복음의 삶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더욱 강건한 기독교 민주시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정치 사회적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배와 교육, 선교활동 등을 통해 '교회생활에 충실한 기독교인'을 길러내는데 열심을 다해 왔다. 그 결과 기독교인 수의 비약적인 증가를

통해 교회성장 면에서 유례없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제 여러 번의 기독교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전체 국민 중 기독교인 수가 1/4에 이르는데다가, 정치사회적으로도 교육 문화 및 생활수준 등에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비중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그런 만큼, 교회와 교인의 이익과 영역을 더 확보하려는데 관심을 두기보다 정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하게 갖고, 한국사회의 더욱 성숙한 발전을 위해 선도적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기본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민주시민 교양교육이 전무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제 무엇보다도 교회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단지 신앙인으로 길러내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기독교 민주시민'으로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인지,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정글과 다원주의 사회의 저변 속에서 어떻게 다른 관점을 소유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배워 익히게 하고 가르치는 '기독교 민주시민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백승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BA),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MA),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Ph.D.)에서 수학하였다. 새문안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고,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학교법인 삼곡학원 (삼곡중고교, 장안여중)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정치분과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www.cupbooks.com

영적 상속의 기쁨을 선물하는 게리 토마스의 스테디 셀러

이 책은 우리 부부의 이야기다!
딱히 뜨겁지도 않지만 차지도 않은 부부
그냥저냥 문제 없는 듯 사는 부부
변화를 포기하고 심드렁하게 사는 부부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찌들어 있는 부부
사랑은커녕 미움을 절제하기도 힘든 부부
이혼해야 할까 수도 없이 갈등하는 부부

모든 부부에게 희소식이 될 기적같은 책!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전하는
게리 토마스의 이야기에 흠뻑 빠지고, 답살
돋는 부부의 행복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
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부들의 가슴을 뿥 뚫어주는 책이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답살 돋는’ 부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책을 읽는 내내 나는 무릎을 쳤다. “딱이네!” 송길원 목사, 가족생태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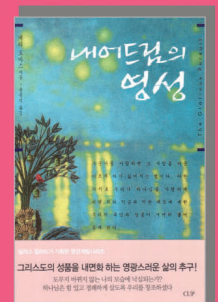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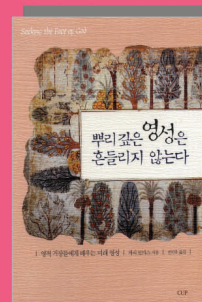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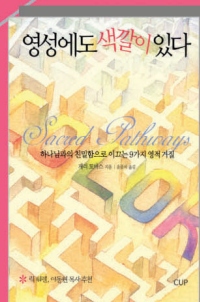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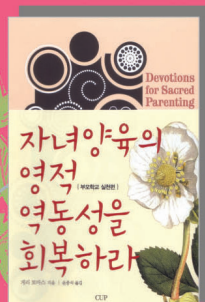
CUP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중석 옮김 | 신국변형 | 376면 | 15,000원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남편을 변화시키는 비결 남자의 뇌를 알면 답이 보인다!

뇌의 작동 원리상 (옥시토신의 분비로) 여자들은 정서적인 이슈들을 얘기하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불안과 고통을 느낀다. 아내들은 문제를 얘기하면 마음이 가라앉지만, 남편에게는 그것이 고문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남자들은 때로 단청을 부리는 것이다.

— 게리 토마스의 책들 —





말씀(Logos)이 체현(體現)된 환경조각의 공동체성

‘사랑의 종’ 소리가 울리다

☉ 오의석

한 점의 조각 작품이 작가의 스튜디오와 미술관의 실내 공간을 떠나서 자연이나 도심의 환경 속에 자리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작품의 놓이는 현장의 물리적, 시각적 공간특성을 존중하며 어울림을 갖는 동시에 현장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안에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조각의 설치 장소는 대부분 사유공간이 아닌 공공성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공간처럼 전시작품을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와 작품 앞에 서는 감상자들과 달리 환경작품의 감상자들은 그 길을 지나치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아닌가? 여기서 누구의 눈높이에 맞추어 작품을 구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작품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대중들이 접근하기에 어렵지 않고 다수의 공감을 얻으며 사랑받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환경조각은 대부분 많은 재료와 노동의 양이 소요되는 대형작업으로서 제작비를 제공하는 주문자의 다양한 요구가 있게 마련이며 그 요구를 수용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환경조각의 제작 여건 속에서 말씀을 담아내려는 시도와 노력까지 더하려 든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떤 작품보다도 위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환경작업인 것이다. 그래서 작품의 구상에

서부터 제작과 마지막 작품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더블유 존에 세워진 '사랑의 종' 탑 이야기

양평의 해피랜드 W-zone에 설치된 <153 사랑의 종>은 자연장의 추모의 종을 겸하기도 할 종탑으로 세 마리의 물고기 형상이 만나 삼위일체를 이룬다. 이 세 마리의 물고기가 교차하는 꼭대기 곧 종탑의 지붕은 무지



준공 시종식에서 작품설명 중인 작가, 2011. 5. 16일

153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렸을 때 잡은 고기의 숫자가 153이다. 기적의 수이며 순종의 수이다. 하이패밀리는 양평 'W존'에 와서 종을 울릴 때마다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기부를 함으로써 기적의 153마리 고기처럼 심장병 어린이에게 새 생명의 기적은 안겨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신앙을 일깨운 새벽 종소리가 153개 미전도 종족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는 마음도 담았다. 153개 종류의 다른 방언으로 '사랑해'라고 새긴 까닭이 그것이다.

- 하이패밀리 홈 페이지 송길원 대표의 글 '송요각' 2011. 5월 중에서 -

개 빛 사랑의 형상인 '하트'가 놓였다. 물고기 형상의 사다리 구조물에는 153개의 크고 작은 스테인리스 종들이 매달렸다. 가장 높은 곳 가운데에는 강화도 마니산 기도원에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100년 된 종을 달았다. 종탑이 선 자리는 하이패밀리 양평 'W zone'의 기슭은 지리적으로 공명이 큰 곳여서 그 울림이 아름답고도 깊다. 종탑 바닥은 석조 계단이며, 153개 국가와 부족의 언어로 '사랑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종이 울리면 그 소리가 '사랑해'라는 뜻을 담아 온 땅에 퍼져나갈 것을 소원하고 있다.

사랑, 공명, 일치, 소통이 작품을 이루는 실마리인 셈이다. 틈날 때 꼭 한 번 들러서 종을 울려 보기를 바란다. 온 누리에 나의 행복이 번져갈 것이다.

환경조각의 공동체성

작품 '사랑의 종'은 작품의 구상부터 많이 달랐다. 먼저 가족들의 아이디어가 작품에 많이 반영되었다. 일례로 작품의 뼈대를 이루는 물고기의 모양은 둘째 아이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었다. 가족 중에는 발품으로 도운이도 있다. 모형 제작에 필요한 작은 장식용 종을 구하기 위

물고기 형상의 사다리 구조물에는 153개의 크고 작은 스테인리스 종들이 매달렸는데 153개 국가와 부족의 언어로 ‘사랑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종이 울리면 그 소리가 ‘사랑해’라는 뜻을 담은 땅에 퍼져나갈 것을 소원하고 있다. 사랑, 공명, 일치, 소통이 작품을 이루는 실마리인 셈이다.

해 아내는 대구 서문시장을 누비고 다녔다. ‘사랑해’라는 단어를 153개의 다민족 언어로 찾기 위해서는 GBT의 도움을 구했다. 계획안과 모형이 확정된 후 실제 작품의 확대 제작에는 여러 협력 업체의 도움이 필요했다. 금속 구조체를 제작한 새시대 스튜디오, 석 좌대와 각자를 담당한 석예석재. 종탑지붕의 색유리 작업을 도운 HK 스테인글래스가 주요 협력 업체였고 업체들은 작업의 여러 부분들을 또 다른 많은 업체에 도움을 구해야 했다. 새시대 스튜디오 노동자 중에는 북에서 온 새터민도 있었고, 또 몽골에서 온 한 청년이 있었다. 작품설치의 현장에서 ‘사랑해’란 단어가 자신이 조국인 몽골어로 새겨진 것을 보고 좋아하던 모습, 그리고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언어를 찾아내어 읽으며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들의 땀과 수고를 빌리지 않았다면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어려운 작품이었다.

20세기 현대 추상조각의 거장 브랑쿠시는 조각가와 조각가의 작업을 두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정신은 황제처럼 군림하고 육체는 노예처럼 일한다’ 조각

이 지닌 정신성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노동성을 강조한 말이다. 사랑의 종탑이 대형작품이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없는 그 많은 노동의 짐을 덜어준 협력 업체와 수고한 작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흔히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면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다. 공공성을 가진 환경작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사랑의 종을 완성한 후 표제석에는 제작한 조각가의 이름을 새겼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 작품은 제작한 작가만의 작품이라 할 수 없다. 먼저 작품제작비를 후원한 수많은 기부자들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는 선대 어른의 유산을 제작비로 드린 한 집안 형제자매들이 있다. 사랑의 종은 작품의 제작을 도우며 땀흘린 수많은 손길들과의 공동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작품을 찾아서 종을 울리며 행복해 할 많은 감상자와 방문자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조각은 구상과 제작과 완성 후의 사용에 있어서까지 공동체적 성격을 가진다. ‘사랑의 종’이 한 조각가의 작품에 머물지 않고 우리 모두의 작품으로서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오의석 조각가, 서울대 미대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나와 대구가톨릭대 조형예술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대학 MF 지도 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개인전 17회(서울, 대구, 부산, 제주, 휘트웨이, 연길, 아체), 메사이머대학 초대 조각 2인전(2004), IFA 미술전 참가(중국 곤명, 1999), 광주비엔날레 특별전(2000), 대구미술의 오늘전(2004) 등에 출품했다. 저서로는 『기독교와 미술(공저)』, 『예수 안에서 본 미술(홍성사)』, 논문으로는 ‘성경적 조형관’, ‘현대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한국 현대 로고시즘(Logos-ism) 미술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기독미디어아카데미 종강예배 졸업생 답사

중기과정 5기를 마치며

☉ 박혜경



다크서클, 수면부족, 중국집 철가방 같은 카메라 가방 들고 뛰기, 끼니 거르기 또는 아무거나 되는대로 끼니 때우기,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기,... 지난 4개월간의 제 생활용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은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독미디어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군교회에서 형제들에게 영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싶은 것과 선교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의 보고 영상을 기록 수준의 영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지원동기를 다 이루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제가 절대로 손댈 수 없을 것 같은 영역에 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또 저의 지원동기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과제와 시사문화 QT는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과제를 통해 제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을 말 대신 영상과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한 고민들을 해보았고, 시사문화 QT를 통해 그동안 세상을 향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속 후련하게 쏟아냈습니다. 영상 과제가 말로 표현해 무엇하겠습니까? 장유진, 유지는 PD님과 박 간사님의 노력으로 도저히 영상이라 할 수 없는 걸 영상으로 둔갑시키는 마술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5기생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기독미디어아카데미를 위해 일하시는 교수님과 강사님들의 수고에 대한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당신들의 세계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치고, 미디어를 가르치는 삶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상캠프며 졸업작품이며 몇날 며칠을 망가지도록 밤을 세워가며 함께 하셨던 PD님들... 그 분들이 만드신 어떤 영상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분야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교수님들과 강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끼는 동지애와 배움을 얻은 제자로서 느끼는 스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난 4개월을 특별한 은혜와 기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차르트 이펙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찬송이펙트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

클래식 음악의 힘을 뜻하는 '모차르트 이펙트(Mozart Effect)'란 말은 1990년대 초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음악을 들으면 나타나는 지능효과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면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프란세스 라우셔 박사가 이끄는 '학습과 기억에 대한 신경 생물학 연구소'에서 심리학과 대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K.448'을 들려주고 지능실험을 치렀는데, 그 결과 음악과 공간 추리력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연구발표 다음날, 미국 전역에선 이 실험에 사용된 모차르트 음악들이 레코드 가게에서 날개 달린 듯 팔려 매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지지를 받아 세계 5대 메이저 음반사인 워너 뮤직 역사상 최다 판매 기록을 올렸다. 이들의 주장은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대뇌피질에서 신경세포의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특히 시공간적 추리력과 연결된 창조적인 우뇌의 작용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차르트 음악은 집중력을 높이며 직관적인 도약을 더욱더 쉽게 해주어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주의 집중이 개선되고 심지어 수학 실력까지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1736년, 찰스 웨슬레(Charles Wesley, 1707-1788)가 범선으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모든 승객들이 파선당할까 두려움에 쌓여 떨고 있는데도 이랑 곳 않고 힘찬 찬송을 부르는 모라비아 교도들을 보게 되면서 찬송의 위력을 발견하고 크게 감동하였다. 이후 피터 빌러(Peter Böhler)라는 모라비아 교도 지도자에게서 식사 도중 "내게 혀가 천개가 있을지라도 그 혀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라는 말에 영감을 받고, 18절로 된 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만 입이 내게 있으면(O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은 그 중 7절 가사였다. 원래의 영어가사인 '천개의 혀'는 우리나라에선 '만개의 입'으로 번역되었는데, 우리에게겐 원작보다 한층 더 은혜롭다. 입술에 하나님의 존영이 있다 하지 않는가(시 149:6). 만개의 그 어떤 중요한 일이라도 찬송보다 값진 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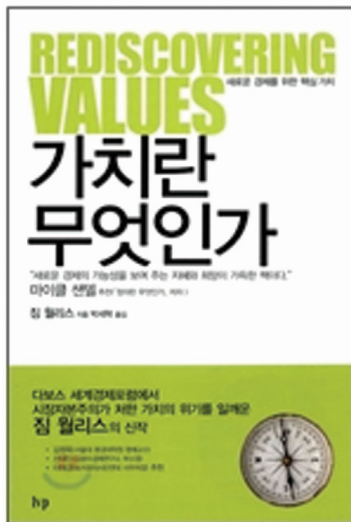
이 시엔 음악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찬송의 이펙트가 여덟 개 짝 열거되어있다. 찬송가운데 '구주 주신 은총을' 깨닫게 되는 '은혜'와 감사의 이펙트, 삶의 현장에서 늘 '도와주시'는 인도와 보호의 이펙트, 솔로몬 때처럼 성전 가득 '크신 영광'을 보이시는 입재의 이펙트, 첫 번 성탄 때 천군천사들처럼 기쁨의 소식을 '널리 퍼 다 알게'하는 복음전파의 이펙트, 악신 들린 사울 왕을 다윗이 찬송으로 낮게 했듯 '위로'와 신유의 이펙트, 나날이 잔치 같은 '희락'의 이펙트, 기드온 용사가 나팔을 불며 빈 항아리를 깬듯 '죄의 권세를 깨뜨려 그 결박을 푸시'는 권능의 이펙트, 더럽고 '추한 맘을' '정케'하시는 사죄의 이펙트 등등... 웨슬리는 1738년 5월 21일 주일에 회심하였는데, 그 일주기를 기념하여 이 찬송을 지었다.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교회음악아카데미 원장

가치란 무엇인가

이윤재



짐 월리스 저, 박세혁 역, IVP, 2011

가치혼동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다

미국에선 2008년 금융위기 시에 사회의 금융시스템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대형은행을 부도낼 수 없다는 이유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 돈(서민들의 세금)으로 생명연장에 성공한 은행들은 돈을 절약하여 하루 빨리 빚 갚을 생각은 고사하고 고위 임원직원들에게 엄청난 상여금을 지원하여 오바마 대통령까지 화나게 만들었다. 이를 지켜본 미국 시민들이 분노하였다. 종류는 좀 다르지만 일반 서민들의 맘을 아프게 한 사건이 한국에도 일어났다. 최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후 예금 부정인출 사건은 서민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은행의 고위직 및 VIP 고객들은 미리 정보를 빼내 예금을 찾았으나 일반 서민들은 고스란히 당하였다. 정부의 감독기관도 유착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미연에 이를 막지 못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되었다.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회적인 가치가 훼손되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가치란 무엇인가』는 이런 가치혼동의 시대상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며 통찰력도 뛰어난 저서이다. 저자인 짐 월리스는 『회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 『하나님 나라의 정치』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작가이자 신학자이다. 더 이상 가치가 혼돈된 세상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우리 자신이 스스로 회심하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선지자적 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서는 일견 철학서적 같지만 경제서적-성경적인 경제서적(biblical economics)-에 가깝다. 오늘날의 물질중심의 자본주의와 같이 가치가 전도된 경제 시스템 하에 선 경제성장률이 높아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의 재발견

저자는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2009년 1월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곳에서 CNN 기자들이 유수한 세계적인 기업회장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한결같이 질문의 초점이 “이 위기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다?”였다. 그러나 짐 월리스는 이런 류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문제의 본질은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위기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물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 가치를 매길 것인가? 어떻게 기업행위를 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근원적인 것, 즉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한다(서론 pp.19~20).

본서의 원문에 충실한 제목은 ‘가치란 무엇인가’ 보다는 ‘가치의 재발견(Rediscovering Values)’으로 하는 것이 더 원문에 충실하다. 원제목에서 상징하듯이 우리가 그동안 잃고 지낸 가치들을 재발견하고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고 적용하여 인간다운 경제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회심

저자는 가치회복을 위해선 ‘경제적 회심(an economic conversion)’이란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원적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예수를 믿지 않

는 비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의 인생관이 획기적으로 바뀌듯이 오늘날의 경제생활에도 획기적인 변화-경제적인 회심-가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인 회심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었는데, 그 원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탐욕이다. 현재 자본주의는 물질은 많을수록 좋다고 믿는다. 다다익선이다. 더 큰 아파트, 더 크고 좋은 사양의 최신 자동차, 더 큰 요트 등 욕심은 끝이 없다. 이런 탐욕이 뭐 잘못 된 것이냐? “이런 욕심(탐욕)이 개인이나 국가경제 발전의 동인이 되는 선(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학교에서도 생산이나 소비는 많을수록 만족도(경제학에서 전문용어로 효용이라 함)가 높아진다고 가르친다. 어떻게 (어떤 가치관 하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가는 고려치 않고 있다. 성경은 탐욕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딤후 6:10).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 나를 중심으로 한 교만과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이기적인 개인단위의 원자적인 경제인(atomic agent)을 상정하고 있다. 이런 개인 중심 단위의 경제를 필자는 ‘Meconomy’라고 명명한다(목회와 신학 2011년 1월호 북리뷰 참조).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경제공동체를 강조한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이런 경제공동체를 필자는 ‘Weconomy’라고 명명한다. 특히 경제적 약자(나그네, 고아, 과부)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다. 셋째, 지금(right now)원한다는 조금증이다. 지금 소비하고 나중에 갚아도 된다는 빚 경제로 호도하고 있다. 각종 신용카드, 할부 구매 등을 통해 “지금 소비하라”고 집요하게 광고한다. 어느덧 우리 사회도 빚경제에 빠져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약 800조 원에 달하여 금리 인상 시에 가계부문의 빚 부담이 우려된다. 빚은 처음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일정 규모가 넘으면 빚의 종 신세로 전락한다. 또한 ‘지금’ 을 강조하면 천연자원의 고갈과 함께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피조물이 신음하게 된다. 이미 우리 주변에 공기, 수질 등이 오염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이면에는 시장이라는 우상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시장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닌 영원한 것이 되었으며, 그에 저항하거나 심지어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불가능 해졌다”고 설파하고 있다(P.49). 시장의 힘을 과도하게 신봉하는 많은 경제학자들(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 것은 시장이라고 주장한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는 시장경제에 대한 많은 회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약 30여년 (1980년대 레이저노믹스 이래, 필자 주)을 실시한 결과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부작용 (대표적: 빈부차)이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빈부차가 확대된 요인으로 시장경제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개입과 과도한 시장규제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없었다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도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특히 죄로 가득한 인간사회에서 작동되는 시장경제는 주기적으로 대불황이나 공황과 같은 경제위기가 있었다. 그때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기를 넘기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효과적이나 아니냐를 놓고 경제학계에 논란이 있었다. 시장실패 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며 효과적이란 주장이 케인지언들의 주장인 반면에, 정부

의 개입은 궁극적으로 큰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니 시장기능에 맡기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정통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저자인 월리스는 대안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시장이나 정부의 기능만 갖고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공공부문)과 기업(사적부문) 시민사회(신앙공동체 등 비영리 단체들)간의 균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적부문(즉, 시장)에서 나타난 개인적, 사회적 무책임은 이 위기를 불러온 주요 요인이다. 현재의 위기가 발생한 까닭은, 수십년에 걸쳐 사회적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대기업과 은행으로 하여금 공동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장기적 이익까지도 갉아먹은 ‘단기적 이기심’을 추구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듯이 좋은 가치가 약화되면, 문화적으로 사회 도덕성이 약화되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위협을 받는 결과를 낸다”(P.220). 이런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대불황의 요인의 하나가 사회의 정부-기업-시민조직 간 불균형이라는 것이다.

경제의 사회성

이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홍기빈 역, 도서출판길, 2009)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폴라니는 시장경제의 자기조정 (효율적인 시장) 기능의 불완전성을 강조하고,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도 신봉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 활동이란 사회적 과정에서 상호 호혜성(reciprocity)과 재분배원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사회적인 경제공동체) 보았다. 폴라니의 사상은 경제의 사회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보다는 사회의 역할(개입)이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월리스가 종교나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폴라니의 세계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나 시장에만 맡길 경우 경제행위의 당사자인 인간의 탐욕이나 자기본위의 경제 행위가 변하지 않는 한 경제의

근원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즉, 경제적인 회심이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카나리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과거에 광부들이 지하 갱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갖고 들어갔다. 유독가스가 차면 제일 먼저 카나리아가 울음으로 경보음을 내어 위험신호를 알린다.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적인 약자들의 소리(고통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경제적으로 위험하다. 성경에도(레 19:9-10) 밭의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주라고 명령한다. 재분배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온전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PP.119-133).

성경적 경제생활의 제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4부에선 “그만 하면 충분하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자족하는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 점을 상기시킨다 (빌 4:11). 하나님의 경제법칙은 ‘충분하다, 우리가 나누기만 한다면’으로 요약된다 (P.150). 제5부에선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경제적인 회심을 강조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전통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일(노동)의 의미와 봉사의 윤리를 역설하고 있다. 이런 가치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의 선조들이 세웠던 청교도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짐 월리스는 이런 가치들을 재발견하고 오늘에 맞게 적용해야 오늘날의 경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가치들은 그 동

안 지나치게 의존한 시장이란 이상으로 말미암아 잊고 지냈는데, 이제는 이런 소중한 전통 가치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가치들은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있었다. 물질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정신세계(비물질세계)를 더 중하게 여기던 시기도 있었다.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사상도 우리에게 되찾아야 할 귀중한 사상이 아닌가! 저자는 맨 마지막 장(17장)에서 구체적인 20가지의 실행계획(도덕운동)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순한 삶은 축복이다, 이웃은 중요하다. 신용카드를 없애라(다소 과격한 구호지만), 카나리아 소리를 들으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경적 경제와 도덕적 회복, 그리고 사회봉사와 사회정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인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한다. 이런 종류의 단편적인 프로그램들은 있으나,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미미한 편이며, 특히 성경적인 생활경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최근 개인의 빚 문제로 파산하는 사람, 무분별한 과소비(신용카드 남용), 도박 및 노름, 부동산 및 주식투자로 인한 재산 손실, 근무시간에 주식거래 등 근로윤리 실종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선 성경적인 경제생활이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점을 이젠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물질적인 추구에 혈안이 된 현대인들에게 경제적인 회심의 기회를 주는 좋은 지침서이다.

*본 원고는 목회와 신학(2011년 6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게재를 허락해준 목회와 신학 측에 감사사를 드린다.



이윤재 숭실대학교 국제통상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경제/경영분과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경속의 경제학』, 『사회적기업 경제』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기독교와 경제학’, ‘기업가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증분석’ 등이 있다.

WORLDVIEW NEWS

임원수련회 개최

8월 19일~20일까지 경기도 여주 패션그룹 형지 별장에서(장소협찬: 김원수 후원위원장) 2011년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임원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손봉호 이사장의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서는 통합 후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비전을 나누며 학회, 아카데미, 연구소, 세계관 운동, 출판 등 각 기관별 향후 발전방향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심도 깊은 토론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헌신하여 동역해 주신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실행위원장, 대외협력부위원장 중국 온주 방문



김승욱 실행위원장과 정수균 대외협력부위원장은 8월 15일~18일까지 중국 온주에 강의차 방문하여 국제기독교학문연구소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웨슬리 선교사 생신축하모임



지난 7월 28일 (목) 12시에 이촌동 사무국에서 웨슬리 선교사의 76세 생신을 축하하는 조촐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선교사님께서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6기 종강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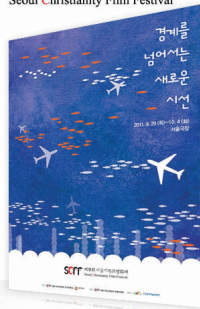
지난 8월 6일 토요일 오후 11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중기과정 5기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신국원 아카데미 소장의 기도와 이승구 부소장의 예배인도로 진행된 종강예배에서는 졸업작품 시사회 및 평가와 수료증 수여, 성적우수상(최우수: 박혜경 / 우수: 박정현) 및 장학생 시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바쁜 일정을 쏙 개어가며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졸업생이 앞으로 미디어 분야에서 세상을 살리는 선한 미디어 사역자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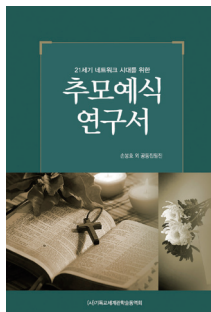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졸업생 작품 기독교영화제 본선진출

SCFF 서울기독교영화제
Seoul Christianity Film Festival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졸업생의 작품이 2011년 서울기독교영화제 '케리그마' 부문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기과정 4기 졸업생인 공주빈(초대), 성민철(비칭)의 작품은 영화제 홈페이지(www.scff.kr)에 온라인으로 상영되며, 영화제 기간(9월 29일 ~ 10월 4일) 동안 서울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최종수상작 발표는 10월 4일 서울기독교영화제 폐막식에서 있습니다. 본선진출을 축하드리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적 추모예식 연구서 구입안내



기독교적추모예식연구서는 전통적인 제사형식을 기독교적으로 수용하여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조상을 추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추모예식 모범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다양한 신학자, 목회자, 유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연구논문과 예식사례를 다룬 모범안 등 2권으로 구성된 연구서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국민일보, CTS, CGN-TV 등 주요언론단체와 협력하여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1인 미디어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실무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손봉호(KBS객원 해설위원, 이인용(전 MBC뉴스 앵커) 등 전 현직 언론실무진과 각 전공별 교수진들의 명강의
- 교육협력기관(국민일보, CGN-TV, CTS) 필드트립

세계관강좌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과 소명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기독교세계관과 역사관
기독교세계관과 생명윤리
창조론과 진화론, 지적설계

미디어 이론 강좌

기독교언론인의 자세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기독교문화관과 미디어
설득커뮤니케이션
뉴스원고 쓰기

영상실습 강좌

영상제작 기획 및 스토리텔링
영상연출 및 촬영, 편집
TV뉴스제작 (스튜디오 촬영실습)
사진의 이해 및 출사
창조적 글쓰기 실습(시사문화QT)
영상캠프(3박4일)
영상포트폴리오 제작

6기 선발안내

접수기간 2011년 8월 15일(월)~9월 26일(월)

지원자격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

선발정원 20명

면접전형 9월 30일(금)~10월 1일(토)

합격발표 10월 4일

개 강 2011년 10월 8일

수업기간 2011년 10월 8일~2012년 1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1시~6시)

수강비: ~~1,200,000원~~ >>> 등록금: 200,000원

(본 프로그램은 수강비 전액 외부후원으로 등록금만 납입)

선발절차

1. 홈페이지(cmca.or.kr)에서 지원서류 다운로드
2. 이메일 접수_서류심사
3. 면접일자 개별통보

* 한정된 인원만 선발하므로 마감일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